

漢韓大辭典

(1) 表精大韓新

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環

◇ 裝 幀

題 字：高麗大藏經 集字

表紙印紋：吉祥圖

表紙構成：檀國大學校 造形디자인學部 金相洛 教授

典 經 大 韓 蕺

漢韓大辭典(1)

1999년 3월 25일 초판 발행

2000년 8월 1일 2쇄 발행

發行人：張忠植

編纂：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發行：檀國大學校出版部

서울特別市 龍山區 漢南洞 山8

TEL. 02)709-2233~4(동양학연구소)

02)709-2191~5(출판부)

등록：1968. 2. 27 : No. 제03-00095호

電算組版：東洋學研究所 電算組版室

印 刷：龍知印刷(株)

© 1999 b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Dankook University

Printed in Seoul, Korea

定價 100,000원

ISBN : 89-7092-231-8 91700

89-7092-230-X (세트)

* 내용의 표절,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파본·낙장은 교환해 드립니다

PL
935.5

.H3643

V. 1

Asian

卷 頭 言

辭典은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이자 학습과 연구의 중요한 道具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룩한 문화적 업적은 사전을 통하여 수집 총 정리되며, 사전을 통하여 전파 확산되며, 사전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사전을 갖는다는 것은 곧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높은 문화의 창조가 우리의 변함없는 命題라고 할 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전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漢字를 매개로 한 사전이 그러하니 동양 고전은 물론 우리 역사와 어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점은 문자와 어휘가 풍부하게 수록된 반반한 漢韓辭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창시절부터 줄곧 품어 온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유산은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가 바뀔에 따라 이를 해독할 전문 인력은 점차 사라져 가는 실정이고, 漢學이 단절되면 문화 유산 또한 死藏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 유산인 典籍이 사장되면 우리 민족 문화가 유실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수천 년의 지식과 정보를 담아 놓은 사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전을 통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규모와 수준을 갖춘 漢韓辭典 - 이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60년대 말, 당시 우리는 일제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겨우 4반세기를 넘긴 시기였으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시급한 일이 산적하여 사전이라면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정도만 생각할 형편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나 할까, 교단을 떠나 총장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내용이 풍부한 사전, 수준이 높은 사전에 대한 꿈을 다시 그려보며 그 실현을 위해 암중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교직자는 물론 사전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 편찬에 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부분이 실현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제작비와 많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적어도 반세기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 사업을 일개 사립대학이 해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나는 檀國大學의 建學 정신을 실현하고 동양 문화의 연구 발전을 위해 본교 부설로 설치한 동양학연구소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륜, 그리고 덕망이 높은 분을 모셔야 했으므로 故 一石 李熙昇 선생님을 三顧의 禮를 갖추어 연구소 소장으로 모셔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만류는 여전했고, 가당치 않은 백일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학의 연구소가 해야 할 사업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인적·물적 조건이 완벽하다면 누군들 못하겠

部			
一	甲 文	一	金 文
一	小 篆	一	小 篆
佚434	毛公鼎	說文古文	說文·一部

일 質 ㉠ 《廣韻》 於悉切 yī

《說文，一部》一，惟初太始，道立於一，造分天地，化成萬物。一，古文一。《段玉裁注》一之形於六書爲指事。《徐灝箋》造字之初，先有數而後有文。一二三畫如其數，是爲指事，亦爲象事也。

① 一 하나. 《玉篇，一部》一，王弼曰，一者，數之始也。《書，文侯之命》彤弓一，彤矢百，盧弓一，盧矢百。《詩，鄭風，野有蔓草》有美一人，清揚婉兮。《論語，公冶長》回也，聞一而知十，賜也，聞一而知二。《孟子，梁惠王上》天下定於一。《漢書，律曆志上》數者，一·十·百·千·萬也。《淮南子，本經訓》由近知遠，而萬殊爲一。 ② 첫째. 《書，洪範》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孟子，離婁下》世俗所謂不孝者五，惰其四支，不顧父母之養，一不孝也。《漢書，鮑宣傳》凡民有七亡，陰陽不和，水旱爲災，一亡也。 ③ 한 번. 한 차례. 《禮記，中庸》人一能之，己百之。《史記，周本紀》方一食，三吐其哺。 ④ 전체. 운동. 《左傳，宣公14年》謀人，人亦謀己，一國謀之，何以不亡。《禮記，雜記下》一國之人皆若狂，賜未知其樂也。/唐，王建《宮詞 61》內宴初秋入二更，殿前燈火一天明。/唐，蔣防《霍小玉傳》一家驚喜，聲聞於外。 ⑤ 서로 같다. 동일하다. 《玉篇，一部》，同也。《詩，曹風，鴈鳴》其儀一兮，心如結兮。《毛傳》言執義一則用心固。《禮記，樂記》禮樂刑政，其極一也。《禮記，中庸》所以行之者，一也。《莊子，大宗師》故其好之也一，其弗好之也一。《郭象注》好與不好，所善所惡，與彼無二也。《孟子，離婁下》先聖後聖，其揆一也。《趙岐注》言聖人之度量同也。《淮南子，說山訓》所行則異，所歸則一。 ⑥ 변함없다. 《荀子，禮論》古今之所一也。《楊倞注》一，謂不變。《淮南子，說林訓》尾生之信，不如隨牛之誕，而又況一不信者乎。《高誘注》一，猶常也。/唐，韓愈《唐故國子司業竇公墓誌銘》公待我一以朋友，不以幼壯先後致異。 ⑦ 잡된 것이 없다. 순수하다. 《易，繫辭下》天下之動，貞夫一者也。《孔穎達疏》皆正乎純一也。《書，咸有一德序》伊尹作咸有一德。《孔傳》言君臣皆有純一之德以戒太甲。《管子，水地》放水一則人心正。《尹知章注》一，謂不雜。 ⑧ 한 가지 일에 전념하다. 《書，大禹謨》惟精惟一。《孔穎達疏》將欲明道，必須精心，將欲安民，必須一意。《荀子，勸學》螾無爪牙之利，筋骨之強，上食埃土，下飲黃泉，用心一也。《韓非子，詭使》賞利一從上出。《禮記，禮運》美惡皆在其心，不見其色也。欲一以窮之，舍禮何以哉。《孔穎達疏》一，謂專一。《淮南子，說山訓》用心一也。《高誘注》一，情專也。《後漢書，馮緄傳》進赴之宜，權時之策，將軍一之。《李賢注》一，猶專也。 ⑨ 조금. 약간. 《玉篇，一部》一，少也。/清，俞樾《諸子平議，淮南內篇 2》古人之言，凡至少者以一言之。《左傳，僖公33年》且吾不以一善掩大德。《關尹子，八覽》一中示多，多中示一。《韓非子，安危》國不得一安。/漢，孔融《薦禰衡表》目所一見，輒誦於口，耳所暫聞，不忘於心。 ⑩ 매(每). 각(各). /宋，范成大《春日田園雜興十二絕 7》一年

一度遊山寺，不上靈巖即虎邱。 ⑪ 다른 하나. 또 하나. 《三國志，魏志，武帝紀》姓曹，諱操。《裴松之注》太祖一名吉利，小字阿瞞。/南朝梁，元帝《金樓子，興王》時許耳之子，名曰由，字道開，一字武仲。 ⑫ 홀로. 단독. 《方言 12》一，蜀也。南楚謂之獨。《郭璞注》蜀，猶獨耳。《戴震疏證》廣雅，蜀，弋也。《說文》云，弋，古文一。爾雅，釋山，獨者蜀，郭璞注云，蜀，亦孤獨。/南朝梁，蕭統《示雲麾弟詩》爾登陟兮一長望，理化顧兮忽憶予。 ⑬ 하나로 되게 하다. 통일하다. 《孟子，梁惠王上》孰能一之，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朱熹集註》王問列國分爭，天下當何所定，孟子對以必合於一，然後定也。《史記，秦始皇本紀》一法度衡石丈尺。/漢，陸賈《新語，明誠》同好惡，一風俗。/唐，杜牧《阿房宮賦》六王畢，四海一。 ⑭ 고르다. 공평하다. 《增韻，質韻》一，均也。《荀子，成相》事業聽上，莫得相使一民力。《韓非子，功名》人主者，一力以共戴之。《淮南子，原道訓》一度循軌。《高誘注》一，齊也。 ⑮ 함께 하다. 같이 하다. 협동하다. 《書，大禹謨》爾尚一乃心力，其克有勳。《孔穎達疏》汝等庶幾同心盡力，以從我命，其必能有大功勳。《國語，晉語 4》勳力一心，股肱周室。《韋昭注》一，同也。《淮南子，主術訓》衆人相一，則百人有餘力矣。 ⑯ 연합하다. 하나로 묶다. 《戰國策，秦策 1》諸侯不可一，猶連鷄之不能俱止於棲之明矣。《戰國策，秦策 5》四國爲一，將以攻秦。《史記，蘇秦傳》故竊爲大王計，莫如一韓·魏·齊·楚·燕·趙以從親，以畔秦。 ⑰ 어느. 아무. 어떤. 한. 某에 해당한다. /漢，劉向《列仙傳，騎龍鳴》一騎龍來游亭下，語云馮伯昌孫也。《三國演義，92回》忽見一人自正南而來，口稱有機密事。 ⑱ 여럿 중의 하나. 또는 한 몫. 《左傳，隱公元年》先王之制，大都不過參國之一，中五之一，小九之一。《呂氏春秋，舉難》擇務而貴取一也。《高誘注》一分。《史記，平準書》白金三品，其一曰，重八兩圓之。《文選，陸機，歎逝賦》顧舊要於遺存，得十一於千百。《李善注》十一者，謂通千百而計之，十分而得其一。 ⑲ 철학 용어. ① 만물의 본원인 도(道). 《莊子，天地》一之所起，有一而未形。《成玄英疏》一，應道也。《韓非子，揚權》道無雙，故曰一。《呂氏春秋，論人》知神之謂得一。《高誘注》一，道也。《淮南子，詮言訓》一也者，萬物之本也，無敵之道也。 ② 도(道)에서 파생된 원시(原始)의 혼돈(渾沌)한 기(氣). 《老子，42章》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列子，天瑞》一者，形變之始也。清輕者上爲天，濁重者下爲地，沖和氣者爲人。《莊子，天地》泰初有無，無有無名，一之所起，有一而未形，物得以生，謂之德。《淮南子，原道訓》道者，一立而萬物生矣，是故一之理，施四海，一之解，際天地。 ③ 참됨. 진(眞). 《老子，10章》載營魄抱一，能無離乎。《王弼注》一，人之眞也。 ④ 착함. 선(善). 《逸周書，命訓解》其極，一也。《注》一者，善之謂也。 ⑤ 자기 한 몸. 자신. 《莊子，徐無鬼》上之質，若亡其一。《陸德明釋文》一，身也。謂精神不動，若無其身也。 ⑥ 악보(樂譜) 공척(工尺)에 쓰이는 부호의 하나. 음계상(音階上)의 한 급(級)을 나타낸다.乙로도 쓴다.《宋史，樂志 17》夾鍾·姑洗用一字。《遼史，樂志》各調之中，度曲協音，其聲凡十，曰五·凡·工·尺·上·一·四·六·勾·合。 ⑦ ⑧ ⑨ 모두. 다. /清，王引之《經傳釋詞 3》一，猶皆也。《詩，邶風，北門》政事一埤益我。《朱熹集傳》一，猶皆也。《書，金縢》乃卜三龜，一習吉。《孔穎達疏》用三王之龜卜，一皆相因而吉。《荀子，勸學》一可以爲法則。《楊倞注》一，皆也。 ⑩ 일당. 만약. 《左傳，成公2年》蔡·許之君，一失其位，不得列於諸侯，況其下乎。《禮記，文王世子》是故古之人，一舉事而衆皆知其德之備也。《史記，滑稽傳》此鳥不飛則已，一飛沖天，不鳴則已，一鳴驚人。《漢書，文帝紀》歲一不登，民有飢色。/唐，李白《與韓荊州書》一登龍門，則聲譽十